식인(食人)종과 식신(食神)종

(열왕기하 6:24~33)

24. 이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5.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주려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요 비둘기 똥 사분의 일 갑에 은 다섯 세겔이라 하니
26.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7.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28.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30.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를 입었더라
31.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식인(食人)종과 식신(食神)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식인(食人)종과 식신(食神)종'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먹는 종족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식신종도 있습니다.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쓰는 '식신(食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음식을 맡은 귀신이지만, 대중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먹을 것을 좋아하거나 많이 먹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식신(食神)종은 식인(食人)종이 사람을 먹듯이 신을 먹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성경 중에 말씀해 주신 것을 그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요6:55~56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믿음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셨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표현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또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말에는 귀중한 의미가 있는데 '마음은 절대로 다른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절대로 다른 것으로 만족하거나 기뻐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배부름과 갈증이 해소되는 것은 기쁨과 만족이 생기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인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먹는다.'는 말은 골3: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말씀과 같은데, 마음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 행동을 믿음의 세계로 끌어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자식을 생각하고 있다면 마음이 자식을 먹는 것이고, 돈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돈을 먹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오직 주님의 살과 피만이 마음으로 먹어야만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마음은 기쁘고 만족하기 위해서 항상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주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며 요6:57절에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마음으로 먹고 사셨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먹고 사는 식신종이 바로 선민이자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참혹하고 끔찍한 광경이 나타납니다. 서로 어린 자식을 잡아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자기 차례가 되자 아이를 감춰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시대적 순서에 따라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추어 사건을 배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연대를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공격하여 점령하기가 어려우므로 아람 왕 벤하닷은 포위하여 장기전으로 돌입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반입되던 모든 물자의 공급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성내의 물자와 음식의 결핍으로 나귀의 머리 하나가

80세겔이었고, 비둘기 똥 사분의 일 갑에 은 다섯 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1세겔은 노동자의 4일분의 품삯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계산해서 하루 품삯을 10만원이라고 치면 한 세겔은 40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나귀는 그나마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먹을거리도 아니었는데, 이미 다 잡아먹고 살이 없는 나귀머리가 80세겔이었는데 노동자의 320일 품삯이니 거의 연봉수준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원이라고 치면 나귀 머리가 3200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비둘기 똥도 현재의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사분의 일 갑은 30ml정도(한 갑은 120~130ml) 됩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 똥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은 다섯 세겔인 20일 품삯 200만 원을 지불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도끼가 요단강 물에 빠졌을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 도끼를 띄웠는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인데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 바다에 빠졌다'는 것은 마음에 세상 것을 담은 것이고 먹은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세상 것을 담고 먹는 이유는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참으로 배부르게 하고 참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굶주림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세상 것을 먹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처럼 자식을 잡아먹는 식인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일상적으로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데 그것이 식인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비어있습니다. 그 빈 마음은 참된 음식이자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인데 예수님이 먹는 하나님을 먹지 않는 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의 먹거리로서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하나님을 먹지 않음으로서 생겨난 마음의 빈 공간은 엄청난 흡입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흡입력으로 자식을 볼 때에 자식을 통해서 마음이 배부르고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식이 서울대에 들어가고 일류기업에 들어가고 멋진 이성과 결혼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자식을 잡아먹는 식인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식인종에게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자식을 통해서 만족하려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남편을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려 한다면 남편을 잡아먹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내 잡아먹는 식인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먹음으로서 마음을 채우라고 제공해주셨는데 그 참 먹거리를 거부하고 굶주리다보니 흡입력이 생겨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어서 만족하려는 것이 곧 비둘기 똥을 집어먹는 것이고 비둘기 똥에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며 가치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는데 1000만 원이 들었다면 비둘기 똥 사분의 일 갑을 얻기 위해 200만 원을 지불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목사가 예배당을 지어서 만족하려고 한다면 나귀 머리를 3200만 원에 사서 굶주림을 채워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식인종의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마음으로 하늘을 봐야하고 하늘을 보는 것은 하늘을 먹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먹는 것임을 알았다면 실제로 식신종으로 돌아서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서 식인종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빈 마음을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붙잡고 잡아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좋아하고 아내로 인해 기쁘고 만족하려는 것이 곧 아내를 잡아먹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내를 대할 때에는 식신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늘로 배불러서 참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활짝 웃으면서 대해야만 합니다. 찡그리고 인상 쓰고 와서 아내로 기분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인상이 펴진 상태로 행복한 마음으로 아내를 만나서 그 행복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내 잡아먹기이고, 남편으로부터 행복을 얻으려 한다면 남편 잡아먹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행복하려는 것이 비둘기 똥을 사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일에서 기업을 잘 일궈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비둘기 똥 사먹는 것이고, 도저히 만족할 수도 없고 배부를 수도 없는 비둘기 똥에 2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고 내 일생을 다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식인종으로 보고 계십니다. 희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늘을 실제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가는 것은 기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승천하실 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하늘을 보는 것이고 하늘을 먹는 것이고 하늘을 갖는 것이고 우리 마음도 하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의무적인 사명을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요1: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시고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뒤에 33년 동안 누리지 못하셨던 우리의 생각에 이 세상의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실 수 있었지만 그냥 하늘로 가버리셨습니다.
주님처럼 하늘로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떠올려봅니다.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서울대학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혼도 안하시고 자식도 낳지 않으시고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그 황홀한 기쁨을 칼로 무 잘라버리듯이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주님의 승천을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칼로 무 자르듯이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선택하신 것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세상의 것들을 좋다고 여기는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늘로 배부를 수도 없습니다.
빌게이츠나 래리 페이지나 중국의 마윈 같은 부자가 부러울 때에 승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려고 했다면 알렉산더나 칭기즈칸 같은 정복도 하실 수 있었고, 빌게이츠나 래리 페이지나 마크 주커버그 같이 거부가 되실 수도 있었으며,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는 자식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칼로 무 자르듯이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아 보이는 그 모든 일들도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등에 좋을 수 없었던 것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러한 예수님 승천의 마음이 사도들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과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 옮겨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실 때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땅에 좋은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실 때를 보면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

미련 없이 한 칼에 베어 버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얼마나 좋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기에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한 순간에 버리시고 올라가신 걸까를 생각하는 마음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옮겨져서 하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아버지를 향하신 열정,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일말의 미련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늘을 보아야하고 하늘을 먹어야 함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3절에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하는데 마음의 흡입구를 땅을 향한 채로 여호와를 찾기 때문에 굶주림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흡입구를 하늘로 향해야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으로 배부를 때에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상황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돈을 향한 채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떻게 배부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흡입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실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이나 변화산의 이야기나 골로새서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 빌립보서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과 에베소서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 인용하는 이유는 하늘로 배불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대로이고 승천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은 더 이상 식인종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찌 되든 말든 나의 만족과 기쁨은 자식과는 무관하고 식신종의 반열에 들어와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잡아먹고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기어이 남의 자녀까지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은 식인종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대가와 힘을 들여서 비둘기 똥을 사분의 일 갑을 200만 원씩 주고 사먹으려는 것과 같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에 가라앉은 도끼와 같은 식인종의 삶을 살지 말고 요단강물에 뜬 도끼와 같은 식신종의 기적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도끼인데 요단강 물위에 떠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럽게 생각하는 모든 왕들의 권력과 재벌들의 재력을 다 버리시고 홀연히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렇게 가버리셨을지 자꾸 되새김질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도 옮겨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로서 배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인종의 대열에서 빠져나와서 식신종의 반열에 올라 날마다 영생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하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냄으로서 실제효과가 나도록 하늘을 보고 하늘로 배부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